

벤츠마저 '디젤 게이트'... 휘청이는 獨, 신차 달리는 美

소비자주권시민회, 벤츠 등 3사 고발
배출가스 조작 디젤차량 판매 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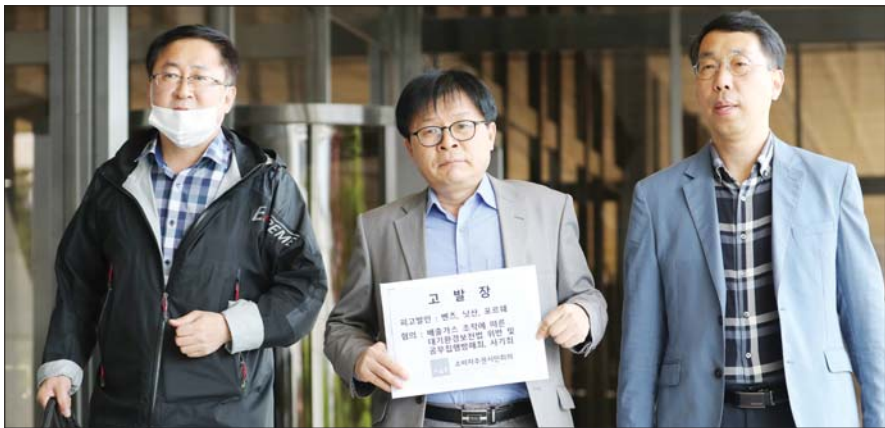
테슬라·쉐보레 등 美 신차 공세

수입차 시장이 또다시 격동기를 맞이하는 분위기다. 벤츠마저도 '디젤 게이트'에 휘말리며 독일차 독주에도 안개가 끼는 사이, 테슬라와 쉐보레 등 미국 차들이 전기차와 신차 공세로 약진하면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메르세데스-벤츠 등 3사 법인 및 대표자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3사가 배출가스를 조작한 디젤 차량을 판매해 수백에서 수천억원 불법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다. 우리 제도와 법규를 무시하고 소비자를 우롱한 것은 물론, 국민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한 비윤리적인 범죄 행태라며 강한 비판도 덧붙였다.

'디젤게이트'가 다시 시작된 셈이다.



2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들이 배출가스 관련 프로그램 조작 의혹에 대해 벤츠, 닛산, 포르쉐 법인과 대표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환경부는 이달 초 3사가 국내에 판매한 차량 14종에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하고 인증 취소와 리콜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을 조치한 상황이다. 닛산·포르쉐와는 달리, 벤츠는 이번에 새로 '디젤게이트'에 포함됐다.

벤츠코리아는 일단 불복 입장을 밝혔다. 해당 기능이 활발한 배출가스 정화율을 보장하는 통합배출가스 제어 시스템 일부에 불과하다며, 각 기능을 개별 분

석한 환경부 조사에 이의를 제기한 것.

일단 벤츠의 제재 대상 차량은 유로6 기준모델로, 현재 판매 중인 차량은 아니다. 때문에 판매가 중지된 차량도 없다.

그러나 벤츠가 판매량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과거 폴크스바겐이 디젤게이트에 휘말렸을 당시 브랜드 도덕성 문제로 수년간 판매량을 회복하지 못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벤츠는 수입차 시장을 수년째 독주하

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누적 수입 승용차 판매량은 7만7614대. 이중 벤츠가 2만2145대로 28.5%를 점유 중이다.

벤츠의 약재는 '독일차 전성시대'에 까지 약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가별로 차량 브랜드를 인식하는 소비자 인식이 이유로 꼽힌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 소비자는 브랜드 만큼이나 브랜드의 국적을 중요시한다"며 "벤츠가 그동안 독일차 위상을 지켜냈지만, 디젤게이트에 휘말리면서 독일 자동차 전체가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파른 전기차 인기도 독일차에는 약재다. KAIDA 회원사가 아니라 해당 통계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테슬라의 올해 1분기 판매량이 4070대에 달했다. 같은 기간 수입차 시장 3위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KAIDA 통계만으로도 전기차 판매

량은 4월 누적 1153대, 전년 동기(325대)보다 254.8% 성장률을 나타냈다. 쉐보레 볼트EV가 매달 300대 이상 판매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국내에 판매되는 독일산 완전 전기차는 2종에 불과하다. 벤츠가 최근 출시한 EQC와 BMW i3다. 폴크스바겐이 올해 ID3를 글로벌에 출시할 예정이지만, 국내에는 올해 안에 내놓을 계획이 없다.

미국차 약진도 독일차에는 위협이다. 미국 브랜드인 포드와 캐딜락이 부진하긴 했음에도 미국차 판매량은 4월 누적 1만524대로 전년 동기(6616대) 대비 59.1%나 급성장했다. 테슬라까지 합하면 3배에 가까운 판매 신장이다.

쉐보레가 KAIDA 회원사에 등록된 영향이다. 콜로라도와 트래버스를 통해 수입차 시장 다크호스로 떠오르며 4월까지 누적 판매량 4943대로 3위를 차지했다. 포드와 캐딜락도 올 들어 신모델 출시를 가속화하면서 미국차의 진가를 알리고 나섰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기아車, 해외 맞춤형 판매·온라인 플랫폼 구축



송호성 사장, 평택항서 수출 독려
코로나 위기, 고객 만족 조치 대응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판매 감소에 직면한 기아자동차가 차별화된 서비스로 돌고구 마련에 나선다.

기아차는 21일 해외 시장에서 고객 맞춤형 판매 프로그램, 판매 딜러 지원,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을 통해 판매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공장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송호성 사장이 20일 평택항에서 수출을 독려하고 차량 품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전망이 밝지 않지만, 각 부문에서 판매 확대와 품질 강화, 고객 만족을 위한 조치를 철저히 시행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아차는 먼저 판매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시장 판매 확대를 위해 총력



기아차 송호성 사장(가운데)이 임직원들과 함께 경기도 평택항에서 니로EV 품질점검하고 있다. /기아자동차

을 기울인다. 기아차는 각 국별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행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구매 및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 5월 중순부터 유럽을 비롯 해외시장에서 '기아차는당신과동행합니다(#KiaMovingWithYou)'라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할부금 납입 유예, 차량 항균 서비스, 홈 딜리버리 서비스, 인터넷 시승 예약을 비롯한 지역에 맞는 고객 만족 프로그램 뿐 아니라 보건기관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국별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

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자택 대기 명령과 국경 봉쇄 등으로 영업이 중단됐던 딜러망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장기간 판매를 하지 못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딜러들의 지원을 위한 것이다. 각 국별 딜러별 상황에 따라 차량 구매 대금에 대한 이자 면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한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 판매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기아차는 올해 범유럽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개발해 하반기 독일에서 시범서비스에 들어간다. /양성운 기자 ysw@

5G 더 빠르고 안전하게... 기업전용망 첫 선

LGU+ '5G 기업전용망' 서비스

일반 상용망보다 속도·성공률 ↑

스마트폰 5G망과 분리된 기업형 5G 통신이 나온다. 이로 인해 산업 현장 스마트화에 가속화가 붙어 5G 산업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5G 기업전용망'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장·병원·항만·물류창고 등 산업 현장 스마트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5G 기업전용망은 점포·사무실·공장·금융영업점·제조현장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기기(센서, 로봇, PDA, 지능형 CCTV 등)나 업무용 단말(휴대폰, 태블릿 등)의 통신 데이터를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제공하는 전용네트워크 서비스다. 특징으로는 ▲통신 속도 및 안정성 ▲서비스 커버리지(지역) 유연성 ▲트래픽 암호화 기반의 보안성 ▲데이터 비용 절감 등이 꼽힌다.



LG유플러스 관계자가 충남 당진에 위치한 GS EPS 공장에서 5G 기업전용망 서비스를 통한 레벨센서 합체를 점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가장 큰 특징은 고품질의 통신 서비스다. 일반 5G 상용망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와 성공률이 높아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항만 크레인 조종이나 지리정보용 굴착기 운용과 같이 정밀한 조치가 필요한 산업에 적합하다. 또 현장 및 제조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센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실시간으로 수집해 불량품 자동 검수 등의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지원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SKB, 지역채널 특화프로그램 제작

사회적가치·자유기획 2개 부문

SK브로드밴드는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채널 특화프로그램 제작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티브로드와 합병을 완료한 SK브로드밴드의 지역채널 특화프로그램 제작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사 참여 독려를 위해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공모를 통해 이뤄졌다.

사회적가치와 자유기획 2개 부문으로 치러진 이번 특화프로그램 공모는 내부 심사를 거쳐 '가치(價値) 삼시다' '버킷리스트 여행 품생품사' (이상 가

칭)가 각각 선정됐다.

'가치 삼시다'는 지역 노포(대를 이어 운영하는 오래된 가게)와 소상공인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같이 고민하겠다는 의도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버킷리스트 여행 품생품사'는 중년 절친들의 로드 버라이어티로 지역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는 각각 13편으로 예정된 두 선정작 제작비 전액을 지원한다. 시청자들은 오는 7월부터 SK브로드밴드 지역채널과 B tv VOD, SNS를 통해 이들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김나인 기자

"양자보안의 힘" SKT, '갤럭시 A 퀴텀' 흥행 돌풍

출시된 'A 시리즈' 중 예약판매 최대

SK텔레콤이 공개한 양자보안 5G 스마트폰 '갤럭시 A 퀴텀'이 SK텔레콤에서 출시된 갤럭시 A 시리즈 가운데 최대 예약 판매량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은 15일부터 20일까지 총 6일간 예약 판매를 진행한 결과, '갤럭시 A 퀴텀' 예약 판매량은 지난해 출시

된 전용폰 '갤럭시 A80' 예약 판매량의 약 3배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갤럭시 A 퀴텀'은 오는 22일 공식 출시된다. 출고가는 59만9500원이고, 공시지원금은 출시 당일 확인 가능하다.

공식 온라인샵 T다이렉트샵에 따르면 '갤럭시 A 퀴텀' 대표 고객은 30~40대 남성으로 예약 고객 중 약 30%를 차지했다. SK텔레콤 갤럭시 A 퀴텀 경품 이벤트 페

이지 조회수는 누적 3만건에 달했다.

SK텔레콤은 일반 고객에게 양자보안 기술을 알리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로보키피' 행사를 잠실 롯데월드타워 아레나광장 5GX 부스트파크에서 진행한다. '로보키피' 행사는 로봇 골키퍼와 유명 축구선수 메시, 네이마르의 승부차기 대결로 전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이벤트다. /김나인 기자